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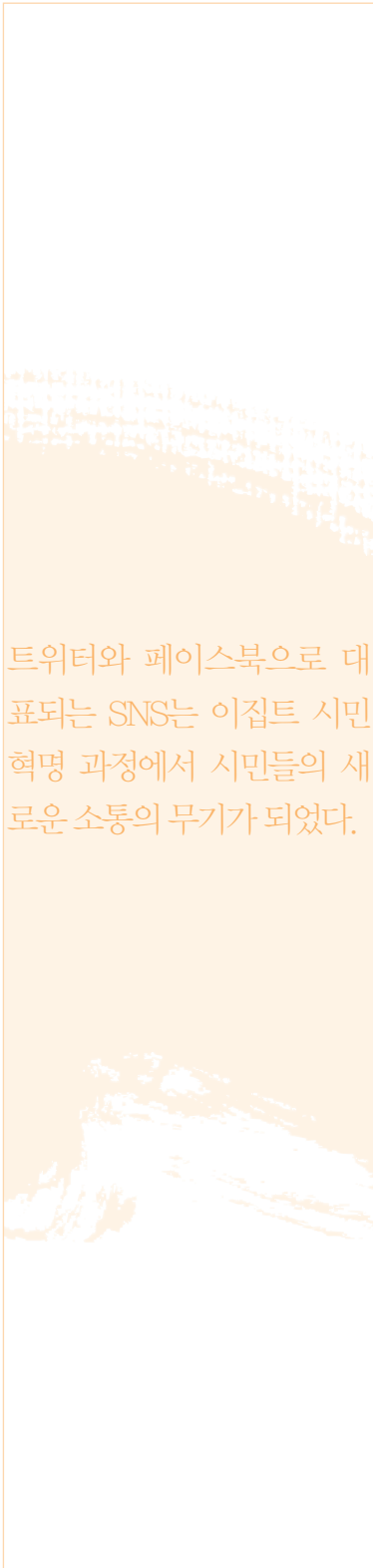


SNS시대에 돌아보는 7~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소통방식

글 · 유창선 시사평론가/yucs1@hanmail.net

지난 2월 무바라크를 퇴진시키면서 일단 성공한 이집트 시민혁명의 과정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돌아보면 이번 이집트 시민혁명은 이집트의 한 청년단체가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 제안에 적극 호응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집회관련 정보들이 속속 올라왔고 SNS를 찾는 시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또한 이집트 시민혁명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른 구글 임원 와엘 고님(Wael Ghonim)은 ‘우리는 모두 칼레드 사이드’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칼레드 사이드는 지난해 6월 경찰의 마약 거래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해 숨진 29살의 청년 사업가인데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수십만명의 회원이 참여하면서 반(反) 무바라크 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이집트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소통의 무기가 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든 이집트 국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위상황을 공유하며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와엘 고넬은 미 CBS방송에 출연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혁명은 결코 촉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무바라크의 퇴진이 있는 직후에 가진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는 TV,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시위의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웹에 넘쳐났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현지 보고서들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시위자들은 이후의 운동방향을 조정해갔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자기 나라 역사의 중대한 순간에 대한 희망과 공포를 공유했습니다. 수백만 세계인들은 실시간으로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한다.’”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든 시민

이처럼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이집트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소통의 무기가 되었다. SNS의 위력 앞에 당황한 무바라크 정권은 급기야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마저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동원하여 이 차단의 벽마저 뚫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무바라크는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SNS는 며칠 만에 복구되기에 이르렀다.

이집트 시민혁명에 앞서 있었던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서도 SNS의 영향력은 나타난 바 있었다. 대학을 나오고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과일 노점상을 해야 했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 사건은 SNS를 통해 전파되었다. 이미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산 추적과 관련해 불만이 쌓여갔던 시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튀니지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결국 시위는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SNS를 통해 어떻게 연계되고 결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것을 막으려는 권력의 통제가 무력할 수밖에 없음도 보여주고 있다. 권위적이고 집중적이며 종종 강압적이었던 기존의 제도권력은 소셜네트워크에 의해 분산되고 협력적인 권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SNS 시대의 본격적인 진행은 시민들 사이의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 민주주의라는 역

사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낳고 있다.

SNS는 이집트의 시민들만 결속시켰던 것이 아니다. 전세계인들이 SNS를 통해 이집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세계여론을 움직였고 이는 무바라크의 퇴진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바라크가 권좌에서 내려와 카이로를 떠난던 날 새벽, 유튜브에 올라오는 알자지라 방송을 시청하며 카이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바라크의 사퇴거부 연설에 격앙된 시민들은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대통령궁으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무바라크가 카이로를 떠났고 그것이 퇴진을 의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장에 모인 인파는 환호를 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을 한국의 안방에서 카이로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SNS를 통해 소통하고 연결되는 이집트 시민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1980년 한국에서도 SNS가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정권을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참극이 빚어졌다는 소식은 계엄사령부의 검열에 따른 보도통제 때문에 전국으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광주에서 벌어진 참극의 진상이 가려진 상태에서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당시 SNS가 있었다라면 광주에서의 참극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알려졌을 것이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인터넷이나 SNS가 없었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화장실 벽 낙서를 통한 소통

그러면 SNS가 없었던 시절,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는 어떠한

전세계인들이 SNS를 통해 이집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세계여론을 움직였고 이는 무바라크의 퇴진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인물, 대자보, 문건 등을 통해 학생 혹은 시민들은 의견을 주고 받거나 주장을 알렸고 심지어 화장실 낙서까지 사용되었다.

소통의 도구들이 있었을까.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그 시절, 학생과 시민들은 무엇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여론을 만들어갔을까.

인터넷은 물론이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다양한 SNS 도구들이 보급된 지금 들으면 무척 단순한 도구들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시대에도 다양한 소통과 홍보의 도구들은 있었다. 유인물, 대자보, 문건 등을 통해 학생 혹은 시민들은 의견을 주고 받거나 주장을 알렸고 심지어 화장실 낙서까지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활용되었던 소통의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도구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유신체제가 유지되던 1970년대 후반 대학가의 풍경은 정말 살벌했다. 학교 안 곳곳에는 사복경찰들이 떼지어 진을 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시위에 대비하곤 했다. 반정부 유인물이라도 뿌려질까봐 학내 곳곳에는 감시의 눈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밝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 학교 안에 들어와 감시하고 있는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유인물을 놓고 사라지거나 유인물을 뿌리고는 곧바로 몸을 숨기는 방법이었다. 물론 그러한 경우라



해도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은 경찰에 붙잡혔을 경우에 따른 위험을 각오해야 했다. 정권을 비판하는 선언문같은 것을 배포하는 요즘 세상 같으면 별 것 아닌 일이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경찰의 감시가 워낙 삼엄하니까 화장실 벽 낙서를 통해 정권을 비판하는 방식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당시 대학 내에 있는 화장실 벽마다 반정부 낙서들이 수없이 적혀있곤 했었다. 화장실 낙서에는 당시 집권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들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현실에 대해 갖고 있던 울분은 이렇게 낙서가 되어 분출이 되기도 했다. 화장실 낙서가 보편화되었던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작용했다.


1980년 민주화의봄과 대자보 소통

1980년대 대학가를 풍미했던 소통방식으로는 무엇보다도 대자보를 꼽을 수 있다. 지금은 대학내 게시판에 여러 주장을 담은 대자보가 게시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80년대 대자보의 등장은 당시로서는 눈길을 끄는 일이었다. 물론 유신독재가 서슬 퍼렇게 유지되던 1979년까지는 대자보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함에 따라 유신체제는 무너지게 되었고 1980년 잠시 '민주화의 봄' 이 도래하였다.

이 시기 대학가에는 시국에 관한 자유로운 입장과 의견을 담은 수많은 대자보들이 곳곳에 붙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박탈당했던 언론의 자유가 살아나고 언론이 트이는 감격적인 상황이었다. 학교 안에 붙어있는 수많은 대자보들은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 곳을 통해 다양한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물론 민주화의 봄에 가능했던 대자보 소통은 5·18을 기점으로 신군부 세력이 전면에서 등장하고 다시 추운 정치적 겨울이 찾아옴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면 이 시기에는 대학가에 있는 서점들을 통해 시국관련 책자나 자료집 같은 것이 몰래 판매되기도 했다. 여러 민주화운동단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료집들을 이들 서점에 넘겨 판매하곤 했는데 학교 앞 서점 주인들은 이런 책자들을 판매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소통의 도구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는 이른바 '문건' 을 들 수가 있다. '팜플렛' 이라고도 불렀던 이 문건은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조직들 내에서 회람을 했던 것인데 주로 당시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노선에 관한 입장들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는 학생운동 혹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이론과 노선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들 문건을 통해 그 과정이 수행되었다. 이같은 문건을 통한 소통은 일반 학생들까지 공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그룹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부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지난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소통방식은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다. 지금은 SNS를 통해 누구나 거리낄 것 없이 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 소통의 길이 차단된 그 시대에는 어려운 방식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는다고,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해 체포와 투옥을 각오하고 학우들 혹은 국민들과의 소통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오늘 이집트 시민혁명에서의 SNS 소통을 보면서 우리의 70-80년대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지금은 SNS를 통해 누구나 거리낄 것 없이 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 소통의 길이 차단된 그 시대에는 어려운 방식들이 동원되어야 했다.